

제675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2년 5월 18일)

안전한 소장품 포장과 보관

권혁산, 역사의 길 원랑선사탑비 앞, 18:00~18:30

소장품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수장고에서 전시실까지 또는 지방이나 외국의 어느 박물관까지 수 천 km를 옮겨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장품의 안전이며, 크고 작은 충격으로부터 소장품을 보호하기 위해 ‘포장’을 합니다.

포장할 때 중요한 점은 재질, 모양, 상태가 각각인 소장품의 특성을 살려 약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모양을 만들어 혹시 있을지 모를 충격의 영향을 분산시켜 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포장 재료와 방법은 박물관이나 나라[國家]별로 조금씩 다르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솜포대기(솜을 안에 넣어 만든 포대기)로 소장품을 감싸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폴리에틸렌 폼을 소장품의 모양처럼 오려내고 그 안에 소장품을 넣는 방법도 사용합니다. 최근에는 금속이나 종이 등 소장품의 재질에 따라 포장 재료와 방법을 다양화 하고 있습니다.

전시하지 않는 소장품들은 ‘수장고收藏庫’라는 곳에서 보관되고 있습니다. 박물관 수장고는 소장품의 재질材質별로 보관하기 위해 공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재질에 따라 최적의 온도와 습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고, 자외선을 차단한 조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장고는 아무나 출입할 수 없으며 많은 보안 장치들을 거쳐야 하는 등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시 공간에 수장고를 재현해 놓아 수장고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다량의 소장품을 보여주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림1. 솜포대기 포장



그림2. 전시형 수장고(프랑스)

특별전<아스테카, 태양을 움직인 사람들>(3)

정현, 121호 특별전시실, 18:00~18:30

‘아스테카’는 마야와 잉카와 함께 아메리카 대륙 3대 문명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아스테카는 우리에게 꽤 낯섭니다. 그들의 역사와 문화 대신, 전쟁과 인신공양의 잔혹한 이미지와 스페인 정복자를 자신의 신으로 오해한 멸망 이야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소아메리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 가운데 하나였으며 견고한 통치체제 위에서 번영하였습니다. 활발한 정복 활동과 공물 시스템은 메소아메리카 전역을 하나로 연결하였으며, 예술과 지식의 발전도 상당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아스테카를 소개하는 이번 전시는 그동안 우리가 관심 갖지 않았던 아스테카의 역사와 문화의 실제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최근 연구와 발굴 조사 결과, 아스테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아메리카 대륙 침략을 정당화하고 새로운 종교를 강요하였던 유럽 정복자의 과장과 왜곡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시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잔혹함으로 치부하였던 그들의 희생제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스테카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시스템은 그들의 독특하고 복잡한 세계관과 우주관을 바탕으로 합니다. 아스테카 사람들은 신들의 희생으로 태양과 세상이 탄생하고 올바르게 작동한다고 여겼으며, 인간 역시 이러한 신들 덕분에 존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전시에서는 먼저 아스테카 사회를 지배하였던 그들의 세계관을 소개한 뒤 자연, 경제, 전쟁, 정치, 예술, 지식, 제의 순으로 아스테카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봅니다. 이번 전시가 그동안 역사와 신화가 혼재하고 과장과 왜곡으로 가려졌던 아스테카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림1. 지하세계의 신
믹틀란테쿠틀리



그림2. 비와 풍요의 신
찰치우틀리구에 화로



그림3. 비의 신
틀랄록을 그린 항아리



그림4. 바람의 신
에에카틀

경주 남산 삼릉계 출토 석조약사여래좌상

허형욱, 301호 불교조각실, 19:00~19:30

약사신앙은 약사여래藥師如來를 믿고 예경하면 질병이 낫고 수명이 연장되며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현세이익적이고 대중적인 불교의 신앙체계입니다. 약사여래는 본래 실존 인물이었던 석가모니불에서 분화되어 성립된 부처입니다. 중생이 겪는 고통의 원인을 어리석음으로 진단하고 이를 깨우쳐주던 석가모니불의 교화적 측면이 심신의 질병을 치료해주는 약사여래로 특화발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약사여래가 계신다는 동방 유리광정토는 죽음 이후의 왕생처인 아미타여래의 서방 극락정토에 대응하는 또 다른 정토로 인식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약사여래상은 약사신앙 수용기였던 삼국시대를 거쳐 통일신라부터 본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소형 금동불상은 서 있는 자세가 많고, 중대형 석불상은 앉은 자세가 많습니다. 그중 석조약사여래좌상은 대부분 왼손에 약사여래를 나타내는 약기藥器를 들고 오른손은 무릎에 댄 향마촉지인을 맺고 있습니다. 경주 남산 삼릉계 출토 석조약사여래좌상은 이와 같은 통일신라 약사여래좌상의 도상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표작입니다(그림1, 1-1). 왼손에 든 보주처럼 생긴 작은 약기는 이 시기 약사여래상의 약기 표현이 다양했음을 알려줍니다(그림1-2).

통일신라 약사여래좌상의 오른손 촉지인은 비슷한 시기 중국의 상이 약기와 함께 지팡이[석장]를 쥐거나, 일본의 상이 오른손을 들어 올린 자세가 많은 것과는 대조적인 특징입니다. 촉지인은 본래 석가모니불이 보리수 아래서 진리를 깨닫는 정각正覺의 순간을 상징합니다. 약사여래가 굳이 촉지인을 맺을 이유는 없지만, 신라인들은 약사여래좌상에 즐기치게 촉지인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촉지인 약사여래상을 통해 질병과 심신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을 돌아보고 어리석음부터 깨우쳐야 한다는 불교의 기본사상을 강조하려 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림1. 전체



그림1-1. 상 부분



그림1-2. 왼손의 약기 부분

석조약사여래좌상, 경주 남산 삼릉계 출토, 상 높이 109cm, 통일신라 8세기 말~ 9세기 초

제675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2년 5월 18일)

고려시대 향과 청자 향로

강경남, 303호 청자실, 19:00~19:30

향의 기원은 제천행사에서 장작을 태우는 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이 땅에서 좋은 정치가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늘에 알리는 것으로, 이를 봉선封禪의식이라고 하며, 향 문화의 원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원전 7세기경 앗시리아 조각품 가운데 궁전에 비치된 향로가 확인되며 중국의 『춘추좌전春秋左傳』 희공僖公 5년(기원전655)에 “일훈일유 십년상유유취(一薰一蕕 十年尙蕕有臭)” 라는 기록의 주註에 “훈薰은 향초香草” 라고 밝혀 이미 기원전에 향 문화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향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많은 향로와 향도구가 제작되었습니다.

향로의 기능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실내의 해충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 둘째, 의복의 냄새와 좀벌레를 예방하는 것이며 셋째, 종교의식이나 의례를 행할 때 신성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고려의 문인 이규보李奎報는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 당시의 향 문화를 비롯하여 귀족 사회의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내용의 글을 많이 남겼습니다. 술 대신 돌술에 차를 달여 마시며 편안함을 즐기는 가운데 향로에는 향연기가 피어나는 풍경을 묘사하거나 술자리에서 침향 연기에 노래하는 목청이 메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박산향로에 녹계향綠桂香을 태우면서 달빛과 향에 취하여 잠드는, 차분한 분위기를 향유하는 귀족의 일과를 표현한 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려사高麗史』에는 송宋에서 사신을 보내와 침향沈香을 선물했다는 기록과 고려 문종 때 송나라에 요구한 약재 목록 가운데 침향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침향이 중요한 약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침향 이외에 정향, 목향, 안식향 등 여러 종류의 향이 고려에 유입되었습니다. 고려시대 사람들은 비취옥을 깎아 만든 듯한 다양한 청자 향로에서 향을 피워 권위를 세우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면서 향 문화를 누렸습니다.



그림1. 〈청자투각칠보무늬향로〉, 고려 12세기, 국보, 덕수2990